지상백고좌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공부하다 죽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



원각 스님은… 1966년 해인사 중봉암에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이후 구족계를 받았다. 수계 후에는 해인총림 선원 등 제방에서 혜암, 성철, 전강, 경봉, 구산 스님 등을 모시고 수행정진했다. 거창 고견사 주지, 해인사 원당암 감원 및 달마선원장, 해인총림 유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3월 해인총림 9대 방장으로 추대된 이후 수많은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부처님 법(法)이 천강(千江)에 골고루 스미듯 세상을 얼려버린 추위도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움츠러들게 한다. 특히나 겨울바람이 매섭기로 소문난 가야산 동장군에게 자비란 없는 듯하다. 말 그대로 뼈를 때린다. 두 겹 세 겹으로 몸을 감싼 목도리가 자기소임을 제대로 못해 민망할 정도.

해인사는 여전했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가람과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는 대중들의 모습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비로자나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기 위해 해인사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이날은 마침 조계종 종정을 지낸 혜암 스님의 22주기 추모다례가 있던 날.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들은 ‘공부하다 죽어라’던 선지식(善知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해인총림의 ‘오직 정진’ 가풍

다례가 끝나고 퇴설당(堆雪堂)을 찾았다. 바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스님의 편안한 미소에 한기(寒氣)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원각 스님은 2015년부터 총림 대중들을 이끌고 있다. 평생 정진해 온 수행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산중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대중들의 정진부터 강조했다.

“이곳 퇴설당은 해인총림의 가풍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대중들의 대중선방으로 또 때로는 어른스님들의 주석처였던 퇴설당은 ‘쌓여있는 눈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덩이처럼 스님들은 오직 참선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의미를 찾자면 달마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혜가 스님의 구도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마 스님이 소림굴에서 면벽수행을 하고 있을 때 허리까지 쌓이는 눈을 맞으며 도(道)를 구했던 그 혜가 스님의 간절한 정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옛 선시를 하나 전했다.

入雪忘勞斷臂求(입설망로단비구)
覓心無處始心休(멱심무처시심휴)
後來安坐平懷者(후래안좌평회자)
粉骨亡身未足酬(분골망신미족수)

눈 속에서 괴로움 잊고 팔 끊어 구하니
마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 편하구나.
훗날 편안히 앉아 평온한 마음을 누리는 이여
뼈를 부수고 몸을 잊어도 보답하기에는 모자라네.

‘퇴설당 정신’을 음미하며 먼저 스님의 수행여정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의 기일에 듣는 사제(師弟) 인연이 흥미진진했다.

‘선악 내려놓으라’는 충고에 발심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행
조사전서 성철 스님 경책에 긴장
선배스님들 정진력에 함께 정진해

혜암 스님 ‘수좌정신’ 韓불교 필요
“공부는 간절히 애써야 성취 가능
간화선 위기? 공부하는 사람 문제”

선악(善惡)의 양변을 내려놓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인사 약수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해인사 중봉암에 계시던 도림 스님(훗날 봉철 스님)이 자주 약수암에 다녀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림 스님이 ‘착한 것도 내려놓고 악한 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심(發心)이 됐어요.”

스님은 발심의 힘으로 중봉암에 올라 삭발을 하고 출가했다. 1966년의 일이다. 시간이 지나 1966년 동안거가 끝나자 혜암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의 정진을 마치고 중봉암에 왔다.

원각 스님은 처음 만난 혜암 스님에게 출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다. “선과 악, 양변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혜암 스님은 더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허락했다.

“은사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노릇 잘 못하면 상좌를 잘못 가르친 스승도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 중노릇 잘하라’고 하시며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중봉암에서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과 한 방에서 같이 생활했다. 저녁 9시쯤 자 새벽 2시 30분쯤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 올리고 정진하고 또 가끔 스승의 법문을 들으며 공양 준비를 했다.

“큰스님께서는 참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이 공부를 해야 수지가 맞는다’고 하셨죠. 이와 함께 인과(因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시며 스스로 올바르게 살고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원각 스님과 혜암 스님은 정진 외 시간에는 울력을 많이 했다.

“큰스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치에 맞게끔 하라고 하시며 나무 자르고 장작패고 밥하는 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는 공양간 바닥에 상을 펴서 같이 밥을 먹고 다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진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큰스님은 항상 여여하셨습니다. 밤새 장좌불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봉암에서 은사스님께 유일하게 배운 게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었는데 신심(信心)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하루는 은사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어떤 구절이 좋으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평등성중 무피차 대원경상 절친소(平等性中 無彼此 大圓鏡上 絶親疎)’를 꼽았죠.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의 본래 마음바탕에서는 가깝고 먼 게 없다’는 뜻입니다.

13면에 계속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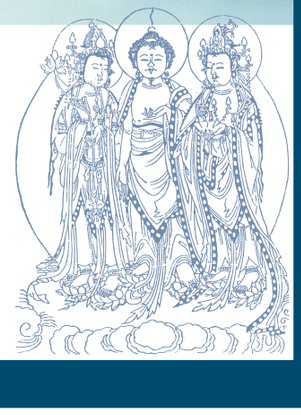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